

조선시대 '중화' 인식 연구의 성과와 제언

나종현*

〈차 례〉

1. 머리말
2. '중화' 연구의 궤적
3.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중화'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조선시대 '중화' 인식에 관한 연구는 특히 근래에 와서 사암문화사 분야나 대외관계사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중화'는 조선의 여러 분야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주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먼저, 특정한 시기나 사건을 중심으로 계기적 설명에 주력하여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중화' 인식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화'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관념들에 대해서 연구자별로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논의의 통일된 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시대 '중화' 인식의 발전을 바라보기 위한 틀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중화, 조선중화주의, 예, 어말선초, 병자호란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1. 머리말

조선의 사상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에 ‘중화(中華)’ 관념을 제외시킨 채로 논의를 전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래에 들어 조선의 ‘중화’ 인식에 관한 논의는 매우 크게 발전하였다. 애초 ‘중화’는 조선시대의 사대주의를 대표하는 부정적 용어로 인식되어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조선중화주의에 주목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제출되면서, 그에 대한 호오는 별개로 하고 중화 관념과 조선시대 연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2010년대 초반 조선중화주의와 관련하여 진행된 일련의 논쟁은 참여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 매우 다양하였지만, 중화 관념에 주목했던 선학들의 연구가 가진 학술사적 의의가 분명하게 인정받는 순간이었다고 하겠다.¹⁾ 이 논쟁에서는 중화 인식의 연구를 이끌었던 조선중화주의에 대한 학술사적 검토와 함께 당시 중화 연구에서의 다양한 쟁점들도 소개되었으며, 중화 연구에 관한 새로운 접근들도 제시되었다.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흐른 지금, 조선의 ‘중화’ 인식에 대한 연구는 한층 더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가 주로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여말선초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 초·중기 중화 인식에 관한 연구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제출되었다. 이전과 같이 집중적인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지만, 서평과 논평 형식을 통해 연구자 간 의견 교환과 논쟁도 진행되었던 바 있다. ‘중화’ 인식 자체를 직접 다루지는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중화’에 대해서 매우 다채로운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시각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그간 새롭게 제기된 견해들

1) 논쟁을 거쳐 제출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우경섭, 『朝鮮中華主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 『韓國史研究』 159, 2012b; 계승범, 『조선후기 조선중화주의와 그 해석 문제』, 『韓國史研究』 159, 2012; 최종석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韓國史研究』 162, 2013; 문중양,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韓國史研究』 162, 2013; 허태구,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韓國史研究』 162, 2013; 김호, 『조선후기 華夷論 再考』, 『韓國史研究』 162, 2013; 김대중, 『‘내부’의 부』에 대한 두 개의 시선』, 『韓國史研究』 162, 2013; 김영민, 『조선중화주의의 재검토』, 『韓國史研究』 162, 2013 등.

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중화' 인식의 연구사를 정리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방향의 연구 경향을 통해서 그간 '중화' 인식 연구의 발전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조선중화주의에 주목하면서 전통적으로 '중화' 연구를 선도하였던 조선 후기 사상·문화사 연구 경향과, 근래 활발한 대외관계사 연구를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출된 여말선초 국제관계와 문물정비를 중심으로 중화 인식의 질적 변환에 대해 지적하는 연구 경향이다. 두 연구 경향은 공통의 논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목하고 있는 시대와 사용하는 방법론의 차이 또한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두 연구 경향의 성과와 학술사적 의의를 소개하는 한편, 각 경향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론적 제언을 더해보고자 한다.

2. '중화' 연구의 궤적

조선의 '중화' 관념은 특히 사대주의(事大主義)와 연결되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적 시선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과 그에 입각하여 전개된 조선의 외교활동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동반된 것이었다기보다는, 근대 이후 정립된 시선을 전근대 한국외교사에 여과없이 적용한 가운데 중국으로의 사대에 지성을 다하였던 조선의 외교 관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대와 자주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모화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였던 조선의 지식인들과 이들의 중화 관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는 특히 조선 후기 전개된 주자학 위주의 사상 경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맞물려 조선시대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본 관념을 형성하였다.

1) 사상·문화사 연구와 ‘중화’ 인식의 전환

조선시대 중화에 관한 후대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을 가져온 것은 1980년대 이후 계속된 사상·문화사 연구의 성과들이었다. 최완수는 ‘조선중화사상’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명의 멸망 이후 조선이 주자학의 적통을 이어받은 중화에 해당한다는 당대인들의 인식을 18세기 조선의 문화지존의식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²⁾ 이 연구는 흔히 사대주의적 모화의식으로서 비주주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비판받았던 조선 지식인들의 ‘중화’ 인식을 ‘문화적 자존’과 연결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중화’ 인식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층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놓았다는 데에 지대한 의미가 있다.

‘조선중화’가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을 설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정옥자의 연구에 의해서다. 정옥자는 ‘조선중화주의’를 조선 고유문화를 창달하고 조선이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며, 이를 기반으로 조선 후기 정치·사상계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명청교체 이후 북벌론(대청복수론)과 존주론(대명의리론)을 축으로 하여 당시의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이 형성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파에 의해 성리학적 이념을 정치현장에 구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북벌론의 퇴색과 함께 존주론의 강화를 가져왔다. 성리학적 명분론인 화이론을 기반으로 한 중화사상은 조선중화의식으로 전환되어, 조선이 곧 중화라는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이는 대보단의 설립으로 이어졌는데, 대보단은 중화문화의 수호자로서의 조선이 명나라의 적통이라는 인식 하에서 자강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조선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³⁾

조선중화주의를 근간으로 한 정옥자의 조선 후기 정치·사상사 연구는 곧 그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조선 후기의 주자학과 중화 인식에 대한 역사적 복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의 연구에서 송시열을 비롯한

2) 최완수, 『추사서파고』, 『간송문화』 19, 1981.

3)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17~18세기 정통주자학자들의 사상을 실학자들과 비교하면서 특유의 의리론과 화이론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렸던 것을 보면,⁴⁾ 정옥자의 연구가 보여준 지향점은 매우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양란 후 국가 재건의 방향성을 도덕국가, 문화국가로 재정립하고 내수외양의 자주보강 정책으로 나아가 조선 문화 중흥을 이룩한 당대의 지식인 사회의 역할 속에서 전근대 중화 인식의 역사적 의미를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⁵⁾ 조선중화주의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한편, 진경문화의 사상적 배경으로 조선중화주의의 발달에 주목하고 이를 주도했던 경화사족의 정치·사회적 입장을 실학과 연결시켜 바라본 연구 또한 조선 후기 사상계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제시하였던 중화에 관한 주요 연구이다.⁶⁾

조선중화주의론을 보다 정치하게 발전시킨 것은 우경섭의 연구이다. 우경섭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조선중화주의를 단순한 관념적 허상이 아닌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시대인식에 근거한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조선중화주의의 이데올로기로 꼽히는 송시열이 지녔던 화이론의 특징을 고찰하고, 당대의 시대인식 속에서 환장암의 건립이 가진 의미를 밝혔다. 즉 조선이 예의로 상징되는 중화문화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천명하면서 조선중화주의가 태동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⁷⁾ 송시열의 의리론에 입각한 중화 인식은 도통론에도 반영되어 문묘이정론을 통해 조선의 도학이 가지는 정통적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으로도 이어졌다.⁸⁾ 명으로부터 건너온 유민과 그 후예들에 대한 조치 또한 변방의 조선이 중화를 계승하였다는 관념 속에서의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⁹⁾ 이러한 모습들은 조선인들이 가졌던 명에 대한 존숭이 단순히 망한 명 왕조에

4) 김준석, 『조선후기 국가재조론의 대두와 그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5) 조선중화주의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경섭, 앞의 논문, 2012b, 244~258쪽.

6)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1995;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유봉학, 『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2013.

7) 우경섭, 『宋時烈의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 『진단학보』 101, 2006a.

8) 우경섭, 『宋時烈의 道統論과 文廟齋正 논의』, 『한국문화』 37, 2006b.

9) 우경섭, 『조선후기 귀화 한인(漢人)과 황조유민(皇朝遺民) 의식』, 『한국학연구』 27, 2012a.

대한 맹목적 집착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중화 문명의 존속에 관한 당대인들의 현실적 고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중화주의는 조선 후기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주제어로 작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화는 정치·사상·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점을 제공하였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¹⁰⁾ 1980년대 이래 사상·문화사 방면에서의 연구를 통해 조선에서의 ‘중화’ 인식에 관한 이해가 보다 확장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중화의 문화적 요소에 주목하여 이를 조선 후기 성리학의 의리론과 결부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중화에 대한 조선 후기 당대인들의 인식을 보다 면밀하게 고찰하여 사상 문화사 연구의 질적·양적 발전을 이끌었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회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상이나 문화 일면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어 조선의 ‘국체(國體)’ 인식과 연관된 이해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¹¹⁾

조선중화주의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다양하게 제기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에 입각하여 조선에서 중화 관념의 발전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할 때 마주치는 몇 가지 문제만을 일단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명청교체 이후 조선중화주의를 발전을 중심으로 설명하다보니 논의가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둘째, 조선 초의 이른바 ‘소중화주의’에서 후기의 ‘조선중화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점, 셋째, 무엇보다도 조선중화주의의 성립에서 중화의 3대요소(지역·종족·문화) 중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하면, 그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중화 인식이 발전해 온 계기와 실제 양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점 등이다. 요컨대, 병자호란과 명청교체의 충격, 즉 화이가 전도된 상황에서의 시대인식을 중심으로 화이론의 질적 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소 불분명하게 설정된 앞선 시기와의 연결점에 대한 규명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10) 대표적으로는 계승범, 『정지된 시간-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11) 조선중화론의 조선의 ‘국체’ 인식에 대한 고찰로는 김인걸, 『정조의 ‘국체’ 인식』,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113~124쪽.

고 하겠다. 물론 송시열 이후 조선중화주의의 발전을 중심으로 중화를 이해할 때, 이후 시기만큼의 사상적 무게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선 전기의 중화 인식은 별다른 논의 사항이 되기는 힘들다. 그러한 면에서 여기에서 제기한 문제는 조선 전기의 중화 인식이 가지는 특징을 명확히 간취할 때에야 유효한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들어 대외관계사 분야, 특히 여말선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중화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 대외관계사 연구와 '중화보편'에 대한 열망의 계기

전통적으로 여말선초의 제반 변화에 관하여서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중심으로 설명틀이 짜여졌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 왕조의 개창은 단순한 역성혁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큰 변혁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중화 인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특히 조선에서의 중화 인식이 중화의 문화적 요소에 크게 기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상 면에서의 변화 즉 주자학의 도입과 그에 입각한 국가의 건설이 매우 큰 요소로 인식되었다. 중화 인식이 중국 왕조와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족 왕조인 명에 대한 사대가 외교의 주요 틀로 정립되었던 점 또한 중화 인식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조선 초기의 명에 대한 사대외교는 주자학이 발달한 조선 중기의 모화적(慕華的) 사대주의와는 성격을 달리 하여, 대명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발현되었던 것임이 특기되었다. 결국 기존 이해에서 주자학의 발전과 사대주의, 그리고 중화 인식의 발전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조선초의 문물제도 정비 과정에 대한 이해에도 반영되었다.

조선초 문물제도 정비에 관한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세종대 '찬란한' 문물의 발전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세종대 과학기술의 발전상에 대하여서는 유교적 이상국가의 실현이라는 정치적·이념적

배경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이 이룩해낸 ‘자주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된 『(신편)한국사』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과학과 기술은 자주적 성향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특히 세종 때에 전개된 과학과 기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集積된 한국과학을 결산하는 것이었다. 중국과학뿐만 아니라, 문명의 교류에서 얻어진 모든 지역의 과학문명을 하나로 융용시키는 도가니와도 같았다. 거기서 동아시아 과학문명 안에서의 새로운 모델이 부어만들어졌다. 세종 때의 선비 과학기술자들과, 관료 과학기술자들은 자기들의 거푸집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자적으로 과학문화를 전개하였다.

세종 때의 과학·기술문화의 독자적인 전개는 분명히 새로운 발전이었다. 과학·기술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학문·문화·예술적 성과가 짧은 동안에 이루어진 적은 한국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다. 그것은 조선식의 창조적인 과학·기술전통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15세기 전반기의 과학기술사에서 세종 때와 같은 유형의 발전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¹²⁾

조선시대 초기의 과학기술의 부흥을 이끌었던 세종대의 눈부신 성과에 대하여 ‘독자성’과 ‘자주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였던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한국사의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과학기술로부터의 탈피와 그로 인해 부각되었던 자주성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조선 초기의 대명 사대외교가 후대의 모화주의적 사대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조선 초의 대외관계와 문물정비에 대해서는 공히 ‘독자성’과 ‘자주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제기된 새로운 견해들에서는 이러한 조선초 문물정비의 ‘자주성’에 대

12) 전상운, 「개요」, 『한국사』 27(조선 초기의 문화Ⅱ), 국사편찬위원회, 1996, 1~2쪽.

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으로 문중양은 세종대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자주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기존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종래 자주적 과학기술의 추구로 인식되었던 '풍토부동', '신토불이', '풍기이수' 등 당대의 발언들은 애초부터 조선 고유의 개별성을 추구하는 문제의식을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려는 언설이 라기보다, 보편적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그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과정에서 조선이 중국과 다르다는 사실, 즉 조선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비로소 인식하며 나타난 표현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¹³⁾ 나아가 15세기 풍토부동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천착하여, 조선의 풍토가 중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물제도를 창제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중국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화의 문물제도를 어떻게 중국과 다른 이 지역에 구현할 수 있는지에 당대인들의 인식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¹⁴⁾ 일련의 연구를 통해 문중양은 조선초 문물제도 정비 과정을 이해할 때 '독자성'과 '자주성'의 담론에서 벗어나 '중화보편(global)'과 '지역성(local)'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초 '중화보편'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래 여말선초 대외관계사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주목된다.

최근에는 특히 고려-몽골 관계에 집중하여 여말선초 대외관계사 연구가 발전하면서, 원 복속기에 정립된 양국 관계가 이후 조선-명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이 다수 제출되었다.¹⁵⁾ 이러한 연구들은 그간 단절적으로 바라보았던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택하고 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 조선 건국을 발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바라보았다면, 최근

13) 문중양, 「세종대 과학기술의 '자주성', 다시 보기」, 『역사학보』 189, 2006.

14) 문중양, 앞의 논문, 2013.

15)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는 李命美,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명미, 「성지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 환경」, 『역사비평』 121, 2017; 정동훈, 「高麗時代 外交文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정동훈,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 『역사와 현실』 113, 2019 등을 참고.

제기되는 새로운 견해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대외관계사 면에서의 연구들은 중화와 명에 대한 이른바 ‘조선적’ 인식들이 고려-몽골 관계에서 정립된 국제관계에 따라 원 복속기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여말선초 중화 인식의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최종석의 연구가 주목된다. 최종석은 조선초 문물제도 정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당대 지식인들의 고민은 바로 제후국 분의에 걸맞는 온전한 예제를 추구하는 데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난제가 산적하여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나, 당대의 유자 관료들은 제후국 분의에 걸맞는 온전한 예제의 실현을 위해 고심하였다. 최종석은 조선 내에서 제후국 명분의 견지는 명에 의한 혹은 명을 의식한 외향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동인을 토대로 한 움직임이었으며, 이 내적 동인은 결국 중화 문명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 세계관 속에서 이상적 중화문명을 구현하려는 일환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⁶⁾ 조선초 중화 보편을 추구하였던 당대 지식인들의 맥락에 주목하는 이러한 견해는, 세부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¹⁷⁾ 문중양의 주장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중화 보편을 추구하는 가운데 제후국 분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였던 조선초 지식인들의 내적 동인은 과연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 최종석은 조선초 문물정비 과정에서 노정된 의식 세계를 화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신을 이(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이라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조선은 화이론에서 공간과 종족의 차이를 뛰어넘어 중화의 보편성에 주목하였고, 동국에서 동인(東人)이 주체가 되어 보편인 중화 문명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의식을 최종석은 바로 ‘자신을 이(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이라 규정하

16)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매커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 소명출판, 2016.

17) 구체적으로는 풍토부동론에 대한 해석 등에서 문중양과 최종석의 견해차를 확인할 수 있다.

18) ‘자신을 이(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에 관하여서는 최종석, 『고려후기 ‘자신을 이(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2017 참고. 이하의 논의 또한 이 논문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고 조선적 자기정체성으로 보았다. 그 형성 계기는 원 복속기 제후국 체제의 성립에서 찾을 수 있다. 원 복속기 '자신을 이(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은 비록 현실추수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으나, 원·명 혁명 이후 현실추수의 굴레가 벗겨지자 중화의 보편성을 주체적으로 지향하는 면모가 부상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성리학의 도입과 같은 사상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¹⁹⁾

최종석의 견해를 정리하자면, 조선초기 문물정비 과정에서 보인 조선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은 바로 제후국 분의에 맞는 예제를 조선에 구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었고, 이는 곧 원 복속기에 동아시아 최초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고려의 제후국 체제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중화 세계에 분명하게 편입하면서 확정된 예적 질서의 규정력을 중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서, 특히 조선초 문물제도 정비 과정에서 보인 중화 보편에 대한 추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성립되었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하려 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최종석의 연구는 또한 고려시대의 이른바 '외왕내제'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조선시대 명과의 외교의례 진행 과정에서의 전례 논쟁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다.²⁰⁾

시기는 달리 하지만, 중국 왕조와의 관계 속에서 확정되는 예적 질서의 규정력을 조선 내부에서의 정치적·사상적 동인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는 허태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허태구는 중화 질서의 일원으로서 조선이 가지는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 다양한 담론을 해석하려 하였다.²¹⁾ 조선에서의 중화 인식과 관련되어

19) 성리학의 도입과 같은 사상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은 보편성과 지역성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사상적 전환에 주목한 김호 등의 견해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성리학으로의 사상적 전환과 지역성에 대한 주목을 연관시켜 이해한 논의로는 김호, 『『鄕藥集成方』에서 『東醫寶鑑』으로』, 『한국사시민강좌』 16, 1995.

20) 최종석, 「가마를 탈 것인가 말을 탈 것인가? 조서와 칙서를 함께 맞이할 것인가 별도로 맞이할 것인가?—성종 19년 조선과 명 사신의 迎詔勅禮를 둘러싼 갈등과 그 성격-」, 『한국문화』 87, 2019; 최종석,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역사학보』 250, 2021; 최종석,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 『민족문화연구』 92, 2021.

21)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특기할 만한 허태구의 주장을 꼽는다면, 최종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말선초에 진행된 중화 인식의 질적 전환, 즉 제후국 분의에 입각한 보편적 중화 문명에 대한 신념을 강조한다는 점, 그에 따라 명으로 상징되는 (그러나 명에 한정되지는 않는) 중화 문명의 가치가 오랫동안 조선의 신념 체계로서 작동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병자호란 시기에도 조야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대명의리론과 척화론에 입각하여 대응하여 나갔다는 점 등이 되겠다.

허태구의 논의는 중화 인식을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전쟁으로 인한 형세론적 변화가 아닌 국제질서의 규정력에 의한 신념 체계로 바라보며, 이 신념 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선시대 중화 인식의 양상을 정치하게 검토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여전히 적지 않은 연구에서 병자호란을 명이라는 특정 국가를 맹목적으로 추정한 결과 자초한 전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명이 상징하는 중화문명에 대한 가치를 당대 조선의 군신과 사대부가 공유한 데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및 지성사 연구에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최종석과 허태구의 연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거론되었던 조선 전기의 중화 인식을 국제 질서와 ‘예(禮)’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정치·사상·문화를 관통하는 시대인식으로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견해인 만큼 보다 폭넓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첫째, 여말선초 신유학으로 인한 사상적 전환과 중화 인식의 질적 전환이 가지는 관계이다. 기존 조선적 중화 인식의 성립에서 주목되었던 신유학의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둘째, 주로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예제 추구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던 바, 여말선초의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의 제반 동향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정치한 탐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화를 하나의 신념 체계로 이해할 때, 조선에서의 중화 인식을 허구적 관념으로 바라보았던 관점에서의 비판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1) 기존 연구의 한계

2장에서는 조선 후기 조선중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상문화사 연구와 여말선초 국제 질서 변화에 주목한 대외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중화' 인식의 연구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들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중화'는 조선시대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사 연구가 진일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각 연구 경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 개별적으로 서술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공통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중화' 인식에 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계기적 설명 방식의 문제이다. 각 연구 경향에서는 '중화' 인식의 발전에 대해서 특정 계기를 중심으로 설명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중화' 인식을 검토할 수 있는 확장력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먼저 언급하였던 조선중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상문화사 연구 경향에서는 주된 연구 목적이 화이전도의 시대상 속에서 중화의식의 변화와 그 영향을 당대의 맥락 속에서 재검토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 경향에서는 '재조지은'을 바탕으로 명에 대한 존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였던 임진왜란과 조선의 굴욕적 항복과 화이전도의 계기를 제공한 병자호란이 중화 인식의 질적 전환을 가져온 주요 계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이전도 이전의 중화 관념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거나 또는 고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였다.

송시열 이후와 같이 조선 사상계에서 '중화'가 매우 중대하게 인식된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중화주의'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다소 평이한 유학적 세계관 정도로 보일 수는 있지만, 조선 전기에도 '중화'에 대한 인식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 결국 화이전도 이후의 중화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전개뿐 아니라 앞선 시기의 중화 관념과의 차이점도 면밀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여말선초 국제질서의 변화와 예제 담론에 주목한 연구 경향에서도 계기적 설명 방식의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특히 원 복속기 고려-몽골 관계의 변화와 제후국 체제의 확립에서 중화 인식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찾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지적을 가할 수 있다. 이 시기 제후국 체제의 확립에서 오는 자기 정체성이 특히 예제 정비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후의 역사 전개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로 다소 단선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계기적 설명 방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중화의 본질을 인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긴 시간대 속에서 정치적·지리적 변수와의 연관 속에서 중화세계관이 그리는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분명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²²⁾ 조선시대 중화 인식의 전체적인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에 특정한 계기에 의한 특정한 상태의 중화 인식을 ‘원형’으로 보고 그에 입각한 설명틀을 고수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대와 넓은 범주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작용을 바탕으로 한 중화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복합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화’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개념들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먼저 ‘중화’ 개념 자체만 보더라도 조선중화주의 연구에서는 ‘중화’ 개념을 이해할 때에 주희에서 송시열로 내려오는 의리론적 화이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화이분별의 이념을 강조하였던 송시열이 자신의 전범으로서 주목하였던 것이 바로 주희와 그의 시대였다. 이적으로부터 받은 치욕을 씻고 전란 후유증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임했던 주희를 통해 송시열은 조선이 지향해야 할 바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²³⁾ 주희와 송시열,

22) 배우성, 『조선과 중화-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2014, 20~21쪽. 이 연구에서 배우성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긴 시간대에서 중화세계관의 추이를 추적하였다.

23) 우경섭, 앞의 글, 2006a, 269쪽.

금에 의해 남쪽으로 밀려난 남송과 이적에게 무릎을 꿇은 조선의 상황의 대비 속에서 조선에서의 중화 관념은 의리론적 화이론에 입각하여 재해석되었다. '중화와 이적의 분별'을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하는 중화 인식에 대해 주목하였던 것이다.

한편, 대외관계사 연구에서는 성리학적 의리론과 결부한 화이론보다는 보편 문화 담론에 의거한 문명론의 견지에서 '중화' 관념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의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을 규정하는 질서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조선중화주의에서 중요시하였던 의리론의 사상적 맥락과는 다른 궤에서의 설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중화 개념에 관한 서로 다른 이해는 연관된 다른 개념에 대한 상이한 방식의 주목으로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예(禮)'를 들 수 있다. '예'는 상기한 두 방향의 연구 경향에서 공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개념이다. 조선중화주의를 강조한 연구에서는 도덕철학이라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강조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예치(禮治)가 주된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예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예송(禮訟)이 전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 바 있다.²⁴⁾ 여말선초 중화 인식의 질적 전환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제후국 분의에 입각한 예제 정비 과정과 논쟁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은 물론이며, 중화 질서의 핵심은 예교 또는 예치에 있으므로 중화 인식 또한 예를 통해 표출되었다는 전제 속에서 '예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²⁵⁾ 그런데 두 연구 경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의 본질과 구체적인 양상은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의 불합치는 사실 '중화(화이)', '예', '도(道)' 등 유학의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다층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각 주장의 주안점을 넘어서서 조선시대 중화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화'와 연관된 다양한 층위의 개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곧 '중화' 인식을 구성하는 이론적 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24) 정옥자, 앞의 글, 26~52쪽.

25) 허태구, 앞의 책, 18~19쪽.

‘중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개념 분석은 한국사 외의 연구 분야에서도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성규는 중화사상을 ‘중국(中國)’·‘천하(天下)’·‘화(華)’·‘이(夷)’ 개념으로 분해한 후, 각 개념들이 가진 다층성을 분석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중국’의 개념을 작게는 경사(京師)를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성현의 가르침으로 구성된 유교적 중국문화, 즉 예교문화가 구현된 영역으로서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분화하면서 그 중 중화사상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이고 불가결한 것은 ‘유일한 문화’인 예교문화가 구현된 영역을 지칭하는 중국의 개념이라 하였다.²⁶⁾ 박충석은 중화 관념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책봉 관계로 형성된 것이고, 나아가 특히 조선조에 있어서는 극히 문화이념적인 지향을 핵심으로 하는 화이관념이며, 그 매개가 되는 것은 예(禮)로 파악하였다.²⁷⁾ 현상적 측면에서의 개념 설정뿐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통해 ‘중화’ 인식에 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2) ‘중화’ 인식에 관한 시론적 제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의 조선시대 ‘중화’ 연구는 조선중화주의에 주목한 사상·문화사 연구와 여말선초 대외관계의 규정력과 예제 질서에 주목한 대외관계사 분야의 연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두 경향을 시기별로 구분하자면 조선 후기와 여말선초(조선 초기)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계기적 설명 방식을 떠나 두 연구 경향에서 제시한 논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관건은 결국 두 시기를 연결하는 조선 전기의 중화 인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선 초기의 문물제도 정비에서 보이는 ‘중화 보편’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중화 의리’에 관한 사상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조선 전기 중화 인식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사료들을 중심으로 특히 조선

26) 이성규,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哲學』 37, 1992.

27)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제2판)』, 삼영사, 2010.

초기 문물제도 정비에 관한 조선 지식인들의 자부심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방식, 그리고 중화 인식에 영향을 미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종대의 문치(文治)에 관한 조선 지식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중화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말선초 대외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예제 질서에서의 규정력이 특히 조선 초 문물정비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대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오는 외적 규정력 외에도 길게는 성종대까지 이어진 문물 정비 제도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던 당시 지식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체성은 조선의 문물정비 제도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도(道)와 문(文) 등의 개념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 도(道)와 문(文) 등은 중화 인식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들이다. 예를 들어, 당의 한유(韓愈)는 도(道)에 대해 논하면서 고대 성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유학적 가치와 문물 제도를 이적의 문화와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²⁸⁾

조선 초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각종 문물정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신숙주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서문(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해동제국기』는 일본에 다녀온 바 있던 신숙주가 1471년(성종 2) 왕명에 따라 찬진한 책이다.

개국 이래로 열성께서 서로 이으셔 정사가 깨끗해지고 바로잡혀졌습니다. 내치가 이미 융성하자 외부의 복속이 곧 안정되어 변방의 백성 또한 안정되었습니다. (중략) 신이 일찍이 듣기로, 이적을 대하는 도(道)는 외양(外攘)에 있지 않고 내수(內修)에 있으며, 변어(邊禦)에 있지 않고 조정에 있으며, 병혁(兵革)에 있지 않고 기강(紀綱)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이에 있어 징험되었습니다.²⁹⁾

28) 『昌黎集』 권11, 「原道」, 유학을 근간으로 한 문화 전통에 입각한 한유의 화이분별의 관념은 조선중화주의 연구에서도 주목되었다(우경섭, 「宋時烈의 世道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32~33쪽).

29) 『海東諸國記』 「序」, 「開國以來, 列聖相承, 政清事理, 內治既隆, 外服卽序, 邊氓安堵. (중략) 臣嘗聞, 待夷狄之道, 不在乎外攘而在乎內修, 不在乎邊禦而在乎朝廷, 不在乎兵革而在乎紀綱, 其於是乎驗矣.」

신숙주는 고려 시대에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일본도 변방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내치가 융성해지면서 바야흐로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되었음을 천명하였다. 이적과의 관계에서 안정과 불안정의 기준이 이적의 습성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조선의 내수와 통치의 안정에 있다고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의 글에서 내치(내수, 조정, 기강)는 군사적 행위(외양, 변어, 병혁)와 대비를 이루며 또한 조선의 안정된 통치를 전조 고려의 문란함과 대비시켰다. 이어서 신숙주는 고대 성왕들이 이적을 다스린 가르침을 소개하며 이를 조선 내치의 융성과 연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어겼던 역대 제왕들의 경우를 들며 귀감으로 삼을 것을 조언하였다. 신숙주의 화이론에서는 바로 문치(文治)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치의 융성을 통해서 중화 세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당시의 조선 지식인 중에서 문치를 중화 질서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는 것은 신숙주만이 아니었다. 조선 지식인들의 중화에 관한 인식은 명으로의 사행길인 조천(朝天) 여정에서 지은 시를 통해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검토 대상이 될 홍귀달과 성현은 각각 1481년(성종 12)과 1485년에 명에 사절로 파견되었으며, 두 학자 모두 뛰어난 문장과 경륜으로 당대 조선의 문치를 대표하는 인사들이라 할 수 있다.

홍귀달은 명을 방문하면서 당시를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이를 시로 표현하였다. 그는 당시를 오랑캐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화 문명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상황으로 표현하며,³⁰⁾ 제도에 도착한 감회에 젖어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홍귀달은 당시를 태평성대로 인식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중화문명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¹⁾ 성현 역시 중화문명에 대한 찬양과 신념을 시로 표현하였다. 그 또한 「早朝奉天門」에서 천자를 뵈고 그 은혜에 대해 노래하였으며,³²⁾ 오랑캐 땅이 안정된 지금

30) 『虛白亭集』續集 권4, 「山海關卽事」, ‘胡塵飛不度, 漢月照無邊’

31) 『虛白亭集』續集 권4, 「山海關 次書狀秋懷九絕」, ‘每年當七月, 萬國慶千秋, 獨有三韓使, 諸蕃最上頭. 虞周興禮樂, 宇宙屬文明, 雨露如何報, 空懷草木情.’

32) 『虛白堂集』 권14, 「早朝奉天門」, ‘塞外妖氛掃地無, 大明初出耀寰區, 梯航不漏職方氏, 冠冕競趨王

이 태평스러운 성세라는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³³⁾ 『早朝奉天殿』에서는 신하들의 보필 속에서 황제가 정치를 펴고, 이에 만국의 사신들이 조빙하는 모습을 상서로운 별들이 奎星으로 모여드는 태평성대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홍귀달과 성현은 자신들이 목도한 태평성대를 중화문명과 예악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명은 이러한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존재였다.

두 학자들에게서는 중화와 이적을 나누는 확고한 기준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명에 조천하면서 각 국가의 사신들과 조우하였는데, 월남 등 유교 문명을 공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시를 나누는 등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으며,³⁴⁾ 명에 조빙하여 중화질서 안에 들어온 국가라 할지라도 유교 문명을 공유하지 않았던 말라카, 티베트 등에서 온 인물들에 대해서는 명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그들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³⁵⁾ 특히 여러 민족 중 중화의 대척점에서 그 질서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에도 명과 마찰을 빚고 있었던 북방민족에 대해서는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였다.³⁶⁾

그런데 비중화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중화 질서의 담지자인 명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비유교적인 명의 풍속이나 음사에 대해서 비판할 뿐만 아니라 태감을 중시하는 천자까지도 비판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³⁷⁾ 중화주의적 시선에서 명의 문화와 정치 전반이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 근간은 바

會圖，清蹕雷吟騰玉帛，祥煙風泛動金爐，堯傳舜繼垂千祀，朝野謳歌仰聖謨。

33) 『虛白堂集』 권3, 『商車行』, “可憐古昔胡虜地，今日民物咸枚寧，太平聲教無遠邇，行李慎莫愁遐程。”

34) 『虛白亭集』續集 권4, 『次安南使阮偉挺夫韻』, “玉節天南使，金臺路上逢。語因風土異，心共性天同。喜接城南杜，還慙吳下蒙。瓊瑤携滿袖，十襲以歸東。”

35) 『虛白堂集』 권4, 『滿刺加國人』, “鬆髮森森半雕額，巖容一一渾漆黑。兩顆磊砢高於丘，深井眼花如鬼賊。缺舌啞啞語不辨，半帶南蠻半西域。絕塞茫茫數萬里，泛海三年朝上國。五嶺以南盡來庭，寸天尺地入圖籍。凶奴氣焰本腥羶，天子所愛惟北極。”; 『虛白堂集』 권14, 『刺麻』, “赤鬪爲衣不着裳，羊冒毛頂染旄黃。橫書梵字上下讀，勤弄臂珠晨夜忙。炙日巖容看更醜，臨風羶臭近難當。却緣暫解銅仙術，聖許時時住寶坊。”

36) 『虛白堂集』 권4, 『滿刺加國人』, “凶奴氣焰本腥羶，天子所愛惟北極。”; 『虛白堂集』 권14, 『達子』, “傾困賞帛如山疊，溪壑難盈不耐求。”

37) 『虛白堂集』拾遺 권1, 『到太平館，與兩太監封裹禮物』, “皇天生巨蠹，侵擾東方民。(중략) 如何聖天子，亦重刑餘人。”

로 문치의 달성 여부였던 것이다.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에 대한 평가에서 성현의 태도는 더 명확히 드러난다. 성현은 요동 지역이 천자가 지나간 이후로 존귀하고 융성해졌으며, 원정이 실패하여 땅이 직접적인 통치 범위에 들지 못하였어도 교화가 진행되어 백성들이 풍요로워졌다고 평가하였다.³⁸⁾ 이는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이 이 땅과 넓게는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교화가 미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이며, 그러한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당태종의 업적을 찬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태종의 원정이 결국 실패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영토 정복만이 왕자의 뛰어난 업적은 아니라 비판하며 나아가 무위를 통한 정벌이 문덕의 정치보다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⁹⁾ 즉, 성현에게 중국의 황제로 대표되는 국제 질서와 문명은 중요한 것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문덕을 통한 내치와 교화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신숙주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문물제도의 정비에 대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스스로 중화에 비견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였던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조선 전기 중화 인식의 변화를 논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조선의 문치에 대한 당대인들의 자부심과 같은 조선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성종대 사(士)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같은 조선의 정치적 상황 또한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⁴⁰⁾

성종대 문치에 관한 자부심과 그에 바탕을 둔 세계 인식을 조선 전기 중화 인식의 변화의 내적 동인으로서 검토할 때,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바, 명이라는 중화 문명의 담지자를 상대화·특수화하는 논리도 발견된다. 이것

38) 『虛白堂集』 권1, 『駐蹕山賦』, ‘歌曰, 昔未駐蹕, 培塿與同, 一焉駐蹕, 高朗顯融. 唐師徂東, 揮霍橫縱. 民雖不靖, 山則貴崇. 聖化無外, 奔奔瀕瀕. 山雖不遭, 民則殷豐. 人加名字, 山無功庸. 崑然千載, 鑿彼遐封.’

39) 위의 글, ‘僅拓境而復疆兮, 匪王者之奇功. 嗚呼, 櫛風沐雨, 何如細氈廣廈之宮, 戎車萬乘, 何如干羽文德之雍.’

40) 성종대 공론정치의 형성 속에서 사(士)의 정체성에 대해 고려한 연구로는 송웅섭, 『조선 성종대 공론정치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이 중화문명을 보편적으로 추구할 때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자율성의 영역에서 검토될 문제인지,⁴¹⁾ 그와는 별개로 성리학적 정치와 사상에 관한 이해의 심화와 관련되어 생겨나는 별도의 동인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일단 이 문제는 문치와 도(道), 그리고 도학(道學) 등 다양한 개념들과 직결되며, 최부와 같은 지식인들이 중국에서 조선이 '예의지국'임을 공인받고자 했던 의식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점,⁴²⁾ 또한 조선 중기 이후 발전한 사림들의 정치 및 사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후 조선 역사의 전개 속에서 이러한 관념들이 서로 연관된 채로 변화하여 조선중화주의 특유의 문화적 중화에 대한 주목, 의리론적 화이론의 전개와 관련된 요소로 자리잡는 과정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중화'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하여 그 학술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중화' 인식에 관한 연구는 특히 근래에 와서 사상문화사 분야나 대외관계사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중화'는 조선의 여러 분야의 변화상을

41) 중화질서를 내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제후국 분의를 추구하는 것이 명 왕조에 대한 외교·사상·정치적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제후국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논리에 대하여, 최근 조일수는 조선이 명 외의 여타 집단과 진행하였던 사교(私交)의 문제를 들며 비판한 바 있다(조일수, 『몽골 제국의 유산으로서의 조명관계(朝明關係)와 중화주의 문제 재고(再考)』, 『역사학보』 256, 2022). 이 문제는 앞서 지적하였던 바, 중화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념들을 보다 정치학적으로 가다듬는 가운데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42) 구도영은 조선의 유교적 역량이 '예의지국'으로서 조선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예의지국' 담론이 명-조선 관계의 외교적 프레임으로서 작동하였다는 점을 규명하였다(구도영, 『조선 전기 朝明외교관계의 함수, '禮義之國』, 『대동문화연구』 89, 2015). '예의지국'의 담론은 외교적 프레임을 넘어서서 조선의 문치 및 정체성과 연관하여 보다 넓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살펴볼 수 있는 주제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사상문화사 연구 경향은 특히 조선 후기 조선중화주의의 성립에 주목하면서, 조선 후기 주자학과 중화 인식을 본격적으로 연구 시야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지대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병자호란의 치욕과 명칭교체 이후 화이가 전도된 상황에서 조선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 인식으로서 조선중화주의에 주목하면서, 조선시대 사상·문화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선 후기 ‘중화’ 인식은 단순한 관념이 아닌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최근 여말선초 대외관계사는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고려에서의 조선으로의 변화를 단절적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발전론적 견해와 달리, 원 복속기 고려-몽골 관계의 정립을 바탕으로 조선의 대외관계와 그에 따른 인식을 설명하려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중화’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원 복속기 제후국 체제의 성립을 바탕으로 하여, 제후국 분의의 실현을 중시하는 ‘조선적 정체성’이 생겨나 점차 내향적으로 변화해나갔으며, 이러한 인식이 조선 초 예제 질서와 문물제도의 정비에 매우 주요한 동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화 질서를 기반으로 한 규정력을 중시하는 이러한 인식은 조선 초의 문물제도 정비뿐 아니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의 설명에도 적용되었다.

두 연구 경향의 공통적인 한계를 꼽아보자면, 먼저 계기적 설명 방식을 사용하여 조선시대 전반적인 ‘중화’ 인식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중화’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관념들에 대해서 연구자별로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논의의 통일된 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시대 ‘중화’ 인식의 발전을 바라보기 위한 틀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성종대 지식인들의 문치(文治)에 대한 인식과 대외 관념을 소개하면서, 기존 두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말선초와 조선 후기, 대외관계에서 오는 규정력과 내부의 변화에서 오는 인식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1. 자료

- 신숙주, 『海東諸國記』.
 홍귀달, 『虛白亭集』.
 성 현, 『虛白堂集』.

2. 단행본

- 계승범, 『정지된 시간-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27(조선 초기의 문화Ⅱ), 국사편찬위원회, 1996.
 김인걸 외,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제2판)』, 삼영사, 2010.
 배우성, 『조선과 중화-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2014.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1995.
 _____,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_____, 『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2013.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_____,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3. 논문

- 계승범, 『조선후기 조선중화주의와 그 해석 문제』, 『韓國史研究』 159, 2012.
 구도영, 『조선 전기 朝明외교관계의 함수, ‘禮義之國’』, 『대동문화연구』 89, 2015.
 김대중, 『내부-외부』에 대한 두 개의 시선』, 『韓國史研究』 162, 2013.
 김영민, 『조선중화주의의 재검토』, 『韓國史研究』 162, 2013.
 김준석, 『조선후기 국가재조론의 대두와 그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 호, 『鄉藥集成方』에서 『東醫寶鑑』으로』, 『한국사시민강좌』 16, 1995.
 _____, 『조선후기 華夷論 再考』, 『韓國史研究』 162, 2013.
 문중양, 『세종대 과학기술의 ‘지주성’, 다시 보기』, 『역사학보』 189, 2006.
 _____,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韓國史研究』 162, 2013.
 송웅섭, 『조선 성종대 공론정치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우경섭, 『宋時烈的 世道政治思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宋時烈的 華夷論과 朝鮮中華主義의 성립』, 『진단학보』 101, 2006a.
 _____, 『宋時烈的 道統論과 文廟釐正 논의』, 『한국문화』 37, 2006b.
 _____, 『조선후기 귀화 한인(漢人)과 황조유민(皇朝遺民) 의식』, 『한국학연구』 27, 2012a.
 _____, 『朝鮮中華主義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 『韓國史研究』 159, 2012b.
 李命美,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 『성지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 환경』, 『역사비평』 121, 2017.

- 이성규, 『中華思想과 民族主義』, 『哲學』 37, 1992.
- 정동훈, 『高麗時代 外交文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명초 외교제도의 성립과 그 기원 : 고려-몽골 관계의 유산과 그 전유』, 『역사와 현실』 113, 2019.
- 조일수, 『몽골 제국의 유산으로서의 조명관계(朝明關係)와 중화주의 문제 재고(再考)』, 『역사학보』 256, 2022.
- 최완수, 『추사서파고』, 『간송문화』 19, 1981.
- 최중석, 『조선초기 국가 위상과 聲敎自由』, 『韓國史研究』 162, 2013.
- _____,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를 매커니즘 -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 소명출판, 2016.
- _____, 『고려후기 '자신을 이(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민족문화연구』 74, 2017.
- _____, 『가마를 탈 것인가 말을 탈 것인가? 조서와 칙서를 함께 맞이할 것인가 별도로 맞이할 것인가? -성종 19년 조선과 명 사신의 迎詔勅禮를 둘러싼 갈등과 그 성격-』, 『한국문화』 87, 2019.
- _____,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 -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역사학보』 250, 2021.
- _____,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 『민족문화연구』 92, 2021.
- 허태구, 『崔鳴吉의 主和論과 對明義理』, 『韓國史研究』 162, 2013.

Achievements of Studies on ‘Sinocentrism’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Suggestion

Na Jonghyun*

This study summarizes the researches on the ‘Sinocentrism’ in the Joseon Dynasty and suggest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search on the ‘Sinocentrism’ in the Joseon Dynasty has been particularly in-depth in recent years, building on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ideological and cultural history and foreign relations history. However,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 first, there are few attempts to examine the overall development of “Chinese” perceptions in the Joseon Dynasty by focusing on trigger explanations centered on specific periods or events. Second, different researchers have different views on not only ‘Sinocentrism’ but also the various concepts surrounding it, making it difficult to establish a unified basis for discuss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the perception of ‘Sinocentrism’ in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Sinocentrism(中華), Ideology of Joseon Junghwa(朝鮮中華主義),
Li(禮), From the late Koryo to the early Joseon Dynasty, Byeongja
Horan(丙子胡亂)

논문투고일 : 2023년 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3년 2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2월 18일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BK Assistant Professor